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吉祥鳥 (48X48-Acrylic on Canvas)

• 산수유 꽃과 함께 새로운 봄 날 아침입니다. "하루 종일 봄 찾아도 봄은 안보여 죄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헤매었네. 봄 찾는 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봄이 오면 늘 경허 큰스님 계송이 생각나서 그려 본 남도의 길상 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7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대화	12	어지러울수록 깨어 있으라
꽃은 흠에서 핀다	20	봄을 여는 첫 손님 - 매화꽃
古典을 읽다	24	필 벽 장편 소설 『대지(大地, The Good Earth)』
	28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안내
알립니다.	30	2017년 '숨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안내
	32	제 회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시심청심	34	할머니의 전설
공감으로 소통하십시오	36	대화, 내 말이 더 적어야...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40	그리움
맑고 향기롭게 소식	43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64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글·법 정(法 頂)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흔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희나 오락
또는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
꾸밈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굵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처자도 부모도 재산도 곡식도
친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진리를 아는
고매하고 총명한 친구와 사귀라
온갖 이로운 일을 알고 의혹을 떠나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한 맛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로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현자賢者는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물 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感覺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의 불에 타지도 말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앞이 저버린 파리챗타나무처럼
재가자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 가사는 출가 수행승이 입는 법복.

여러 가지 맛에

탐착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며
남을 양육하지도 말라
문전마다 밥을 빌고
어느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속의 다섯 가지 덮개를 벗기고
온갖 번뇌를 없애 의지하지 않으며
애욕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내던져버리고
또 쾌락과 우수를 떨쳐버리고
맑은 고요와 인식을 얻어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일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선정禪定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환인지를 똑똑히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애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병어리도 되지 말자
 학문을 닦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自制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이 억세고 못 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제압하듯이
 궁벽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혐오의 헤매임을 버리고
 속박을 끊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벼를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벼는 만나기 어렵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강론 -

범속의 늪에서 벗어나라

“심불반조心不返照 간경무익看
 經無益”이란 말이 있다. 경전을 읽
 으면서 마음속으로 돌이켜보지 않
 는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뜻

이다. 소설이나 신문 기사를 읽듯
 이 건성으로 읽고 지나친다면 설
 사 대장경을 줄줄 읽든 무슨 소
 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듯 독송할 때 경전
 은 살아서 빛을 발한다. 경전이라
 는 거울에 일상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신의 현 존재를 뚜렷
 이 인식할 수 있다.

우리들이 한 집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이
 라 할지라도 그 실체를 파악하기
 는 어렵다. 함께 여행이라도 하면
 서 며칠 동안 한 울 안에서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좋은 친구란 세상에 그렇게 흔
 하지 않다. 내 자신 또한 남에게 어
 떻게 비칠지 때로는 헤아려보아야
 한다.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
 께 지낸다는 것은 큰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한평생을 '이게 아닌데 아
 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삶이 있다

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다.

적어도 자기 인생만은 자주적으
 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경전에는 '선우善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세상을 살
 아가는 데는 그만큼 친구와 영향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친구를 잘 두
 어 덕을 보는 일도 많지만, 친구 때
 문에 한평생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부처님이 석가족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머물렀을 때, 시자인 아
 난다가 부처님께 불쑥 이런 말씀
 을 드린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은 이 길의 절반에 이른 거나 다름
 이 없겠습니다.”

이 길이란 구도의 길이고 열반
 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들이 살아
 가는 인생의 길일 수도 있다.

아난다의 이와 같은 말에 부처

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는 안 된다. 착한 벗은 이 길의 전
부이나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더 자세히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우善友로 삼
았기 때문에 늙지 않으면 안 될 몸
이면서 늙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
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면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착한 벗을 만나 함
께 지내는 것은 이 길의 전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유유상종
類類相從,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
린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와 어
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흔히 알 수
있다. 친구란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우리들이 흔히 겪는 일인데, 친

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 친구
가 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면
서 함께 길 떠난 것을 못내 후회하
는 일이 더러 있다. 친구와 함께 여
행을 해보야 그 친구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럴 바에야 혼자 떨어져
서 자기 식대로 지내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후회하
게 된다. 속물들과 함께 어울리면
내 자신도 또한 속물이 되고 만다.

“외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
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
람을 가까이하지 말라.”

조금은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
처럼 혼자서 가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맑히는 일이기도 하다.

시시결령한 세속적인 유희나 오
락 또는 쾌락에 빠져들지 말고 그
런 일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명들
게 하는 오염이니까. 창조적인 만

남이란, 서로가 좋은 영향을 끼치
면서 범속한 늪에서 거듭거듭 헤
쳐나오는 일이다. 서로가 잠든 영
혼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켜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이다.

“물 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
리라”는 것 이것은 집착이구나, 여
기에는 즐거움도 별로 없고 괴로움
뿐이로구나,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밥이구나, 이렇게 알고 미련없
이 떨쳐버리면서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통
해 인생은 거듭거듭 되살아난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카사파迦
葉(가섭)와 아난다阿難는 매우 대
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카사파
는 아주 검소하고 가난하게 지내
는 것을 수행자의 이상으로 삼는
반면, 아난다는 부처님 시중을 드
는 사자였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

에게서 호의와 많은 보시와 공양
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결식하는 태도에
서도 아주 대조적이었다. 카사파
의 경우는 일부러 가난한 집만을
찾아 다녔다. 그 까닭은, 현재 가
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일
찍이 복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해, 이 다음 생애라도 가
난을 면하려면 지금부터 복을 지
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 그러니
까 단순히 밥을 받기 위해서가 아
니라 그들에게 복받을 마련해주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언젠가는 문
동병 환자에게서 결식을 한 적도
있었다. 그는 평생 마른 옷은 입지
않고 다 해진 누더기만을 걸치고
다녔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이
카사파에 의해 최초의 경전 편찬
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보
더라도, 교단에서 차지한 그의 덕
과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얼굴이 잘생긴 아난다는 여승

들에게나 일반 신자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신 그들의 덕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걸식할 때 부잣집만을 골라 다녔다.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 했을 법도 하지만, 자기네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난한 집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 남에게 보시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배려에서였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걸식(탁발) 태도를 보고, 부처님은 그런 차별을 두지 말고 차례대로 평등하게 걸식하라고 타이르신다.

여러 가지 맛을 탐해서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라는 것, 문전마다 평등하게 고루 음식을 빌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집을 골라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자체가 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比丘)란 팔리어 비쿠(bhikkhu)를 음역한 말인데, 거지라는 뜻이다. 보통 거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콧대가 세어 보시나 공양을 받고도 굶신거리지 않는다. 걸식(乞食)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밖으로는 밥(음식)을 빌어 육신을 돕고, 안으로는 법(진리)을 빌어 중생을 돕는다는 뜻이다. 보시를 받고도 그에 알맞는 법을 베풀지 않으면 빛을 지게 된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시주의 은혜(施恩)가 가벼워야 한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을 살라는 교훈, 지당한 말씀이다.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는 신선한 말씀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대할 때 말의 아름다움에 감사를 느낀다.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숲 속의 용맹한 사자처럼, 늘 살아 움직이는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청초한 연꽃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른 곳 '성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어린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봄이 움트고 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잠잠 하던 숲이 새소리에 실려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봄이 움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는 버릇과 일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목은 버릇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움이 튼다.



맑고 향기롭게를 모바일 사이트와 앱(APP)으로 만나보세요

법정넷(법정스님 추모 사이트)과 맑고 향기롭게를 통합한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앱(APP)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스토어에서 '맑고 향기롭게'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을 포함해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수록 깨어 있으라

- 시대정신에 대하여

글 • 최인호

최인호 • 스님, 제가 청계산에 다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격렬하게 산을 오르다 슬쩍슬쩍 바라보는 자연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연을 느껴야지, 솔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를 봐야지 하며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연을 잃어버렸다는 스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새는 자연을 느껴야 한다는 강박 관념 같은 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자연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게 또 숙제예요. 그저 가까운 산에 가면 되고,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화초라도 키우면 된다

고 전 생각하는데요.

법정 • 그렇지요. 그게 또 숙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만 큼 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자연은 사계절의 질서를 어김없이 지키지요. 거기에는 과속도 추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함께 사는 곳이지요. 숲 속에 들어가면 나무들 모습이 다 다르고 잎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꽃도 다르듯이, 제각각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명의 영역이고 생태인데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해 필요 없다고 가지를 쳐버리고 또 어떤 나무에는 비료를 잔뜩 주고, 어떤 곤충은 필요 없다며 살충제로 없애버리고……. 생태의 조화가 깨진다는 것은 건강한 생명력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구는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사람 골프 치기 위해서 자연을 몹시 훼손시키고 있어요.

외국은 땅도 넓고 지형 자체가 평탄해 나무를 베고 불도저로 밀지 않아도 골프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도나도 골프 선수 하겠다고 온 산을 다 뒤집어 놓는데, 그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마다 수해와 살충제 피해 때문에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소수를

위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그건 행복일 수가 없어요. 행복에는 윤리가 전제되어야 해요. 저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저만 맑고 투명한 시간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이 될 수 없거든요.

남들이야 어찌되었든 아랑곳하지 않는 행복이란 진짜가 아니에요.

최인호 • 환경 문제도 심각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점점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정 • 세계가 한 동네처럼 좁혀지고 있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도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내세우게 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맞서게 되지요. 그 보다는 지구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가 더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는데요.



최인호 · 제 생각으로는 글로벌 시대라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 우리는 늘 시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거울이란 역사이고, 민족의 역사에 대해 아는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를 뛰어넘는, 선비 정신 같은 훌륭한 민족성이 사라져가고 서구에서 유입된 천민자본주의가 득세하는 것도 내 나라 내 민

족, 우리 역사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한탄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일일 거예요.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작품 속에 나의 소망을 담는 것, 내가 쓰는 소설의 주제에 근접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작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던 우리나라가 예의를 상실했어요. 사람들이 무례해진 거지요. 이기적이 되고 “우리”가 없어졌어요. 한국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동족상잔이라는 경험으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예요.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 우리의 사상이 아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 엉뚱하게 우리가 동원돼 한민족끼리 총부리를 겨

냈던 거지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핏줄을 나누는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인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고도 성장도 폐해가 큼니다. 물론 공도 있었지만, 오로지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무시되었거든요. 저는 1950년대와 1970년대의 이 두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법정 · 오랜 세월 농경 사회에서 빚어졌던 훈훈한 인정과 아름답던 풍습이 사라져가는 세태도 정말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경향을 무시한다든가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도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는 나도 반성하는 게 많아요. 옛날의 자로 지금 세상을 재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게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자에는 표준이 아니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교도

도 아닌 우리가 공자 왈 맹자 왈 하던 시절처럼 굳어 있어도 세상 발전이 안 될 거예요.

최인호 · 스님, 혹시 컴퓨터 쓰십니까?

법정 · 아니요. 난 아직도 만년필을 씁니다. 나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사니까 컴퓨터는 못 써요. 시력도 나빠질 테고, 중 방에 쇠덩어리가 있을 걸 생각하니 영 맞지도 않고요. 나는 고색창연하게 옛날식으로 만년필 쓰는 것을 고수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컴퓨터를 써도 나는 자주적으로 나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요.

최인호 · 제가 스님하고 닮은 점이 그거네요. 지금 글 쓰는 사람 중에 컴퓨터 안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법정 •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 같은 데서는 보관용으로 육필 원고를 수집한다고 그러더군요. 요새 손으로 글 안 쓰는 사람들 편지를 보면 괴발개발이에요. 상형문자도 그런 상형문자가 없어요.

최인호 • 필체가 없어지죠. 독특한 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정 • 나는 글 쓸 때 볼펜도 사용하지 않는데, 볼펜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생각이 함부로 손을 따라가거든요. 옛날엔 먹을 갈며 생각을 정리하고 한 획 한 획 붓을 놀리며 책임 있는 글들을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손가락이 빨라서 그런지 무책임한 글을 많이 씁니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가와 바타 야스나리 같은 일본 작가는 자기 작품 〈설국〉을 붓으로 다시 한 번 쓰곤 했답니다. 사실 원고지에 한 칸 한 칸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만년필 동기를 만나 반갑군요.

최인호 • 사람들은 저보고 원시인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방송국에서는 작가 중 컴퓨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면서 취재하겠노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괴팍스러운 고집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제가 잘 알고 익숙한 것을 두고 굳이 새로운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일종의 단순화라고 할까요.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제 글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제가 운전도 하고 기계치도 아닌데 못할 일도 없지요. 하지만 전 아직도 원고지에 만년필로 쓰는 일이 좋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옛 친구 같거든요. 200자 원고지,

아이구 그거 고통이고 어떨 땐 원수 같아요. 완전히 감옥이지요. 한 여름이면 글쓰기 전에 땀부터 푹푹 떨어지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저같은 원시인도 좀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컴퓨터로 쓴 글에선 어딘지 컴퓨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매끈 매끈하고 금속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도 먼저 육필로 쓴 다음 나중에 정리만 컴퓨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그래요. 컴퓨터에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지만 뭐 그리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도 충분한데.

제가 좀 악필이긴 해도, 만년필에 잉크를 채워 넣고 한 자 한 자 글을 쓰는 행위는 늙었긴 해도 아름답고 익숙한 아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늙었지만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옛 친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화제를 좀 돌려보지요. 스님, 어

는 신문에서 인터뷰하실 때 조주스님의 '난세야말로 호시절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정말 호시절입니까? 지금 난세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법정 • 그래요. 현재는 객관적으로 봐도 난세지요.

최인호 • 간디는 우리를 파괴하는 일곱 가지의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 양심이 결여된 쾌락, 성품이 결여된 지식, 도덕이 결여된 사업,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희생이 없는 종교, 위기의 시대에 인도에서 간디가 한 말이 우리 현실과 다 들어맞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현대인은 모두 병을 앓고 있어요.

법정 • 무엇을 갖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 끝

없는 야망은 분명히 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도 분명히 현대인의 병이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 봐야 합니다.

최인호 · 단순하지 못함, 복잡함은 분명 현대인의 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상과 물질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풍부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 잃어버렸어요.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 말입니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맑은 물을 마시는 일뿐인데 현대인은 술이나 달콤한 음료를 찾지요. 그것은 갈증을 더할 뿐 결코 우리의 마른 목을 적셔줄 수 없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한다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듯 신의나 정절 같은 덕목 역시 불변하는 가치입니

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그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단순명료한데도 현대인은 다양한 논리라는 미명 하에 그 사실을 잊고 있거나 모른 채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진리의 검으로 무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아닐까요.

법정 ·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태평스러우면 잠이 듭니다. 로마의 멸망 같은 인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만약 외환 위기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무력해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잠재력과 새로운 지력, 기상을 내뿜었지요. 시절이란 것은 반드시 리듬이 있어요. 굴곡은 시절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멀찍이서 내다보면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난세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니까요.

수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든지 강물이든지 흐름을 따라서 가면 아주 편하지만 수영하는 재미는 없어요. 물살을 약간 거스르며 헤엄칠 때는 몸이 빠근하면서도 뭔가 에너지가 분출되는 게, 새로운 기력이 생기는데요. 흐름을 따라가면 편하기는 한데, 자기의 새로운 에너지, 잠재력은 개발이 안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최인호 · 제가 보기에 지금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자기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난세일수록 그에 휩쓸리는 물거품이 되기보다는 불변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좋은 시절이라는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대개는 난세일수록 남을 바꾸려 들거든요. 언론 등은 남을,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난세야말로 자기 자신이 변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시대를 탓하지 말라. 시대에 의해서 그대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고 ‘난세일수록 의식의 촉수를 세우고 홀로 빛나라’는 뜻이겠지요. 현대인들은 사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계층이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제순위의 가치를 7위쯤으로 가져다 놓는 건 아닐런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여백 미디어) 중에서

최인호 · 1945~2013.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인 1962년 단편 '벽구멍으로'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장 입선하여 문단에 데뷔하였고, 시류의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으로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작품을 써내며 천재적 작가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

봄을 여는 첫 손님 - 매화꽃

글 • 김기철(도예가)

포근하고 화사한 봄별이 내리쬐면 얼었던 대지는 팔고물처럼 보실 보실 풀려난다. 그러다 어느새 꽃다지 제비꽃 같은 것이 돌아나 피고, 묘 잔등에 할미꽃이며 뒤 울안 담 밑에는 꽃보다 더 윤기가 흐르는 함박꽃 싹이 아우성치듯 비집고 올라온다. 그런가 하면 온 산천은 개나리, 진달래가 요란을 떨고 아지랑이 하늘거리는 지붕 위 산마루에는 복사꽃, 살구꽃이 벚꽃에 뒤질까보나 시샘을 하듯 온통 꽃동네를 이룬다.

내가 그 옛날부터 아련한 향수처럼 뇌리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봄은 이런 것이었다. 남들은 봄이 여인의 옷차림에서 오고, 차려놓은 밥상에서 먼저 온다고 하지만 내 경우는

이런 문화적인 것하고는 번지수가 다르다. 그런데 그 언제 적부터, 그러니까 이삼 년 전부터는 식성이 변하듯 그 품목이 바뀌고 말았다.

여러 해 전 섬진강 매화 풍경에 도취되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우리 울안에도 매화 동산을 꾸미기로 작정을 했다. 서북풍이 세차서 좁처럼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반신반의하다가 일단 심어놓고 본 것이 얼어 죽지 않고 잘 자라 내 울안에서도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사에 찌꺼 늘면서 꽃나무 심는 데만은 주제에 맞지 않게 너그러워 욕심껏 사다 심었다. 기후탓인지 아무리 공을 들여

봐도 남녘만큼 꽃송이가 넉넉하진 못해도 이만하면 매화꽃 구경 오라고 나팔을 불어달 만하게 되었다.

꽃은 뭐니뭐니 해도 향기가 있어야 금상첨화다. 특히 나처럼 후각이 예민해서 향기에 환장을 하고, 악취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체질에는 우선 꽃이라면 향기를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만가지 꽃이 별천지를 이룬다 해도 향기가 없으면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매화는 봄을 여는 첫 손님이 아닌가! 매란 국죽 사군자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과연 매화는 근계일학의 근자답게 맑고 고고하게 조용히 오는 것이다.

아직도 꽃샘추위가 설늬은이 얼어 죽게 매서운데도 그 억센 가지 매듭마다 좁쌀톨 같던 눈꽃이 제법 부풀어 올랐다. 덩치 큰 다른 나무들이 추위가 무서워 잔뜩 움츠리고 있을 때 맨 먼저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매화인 것

이다. 나는 봄이 오려 할 때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할 일 없이 맨 흠바닥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 아마 그런 버릇 때문에 매화 가지를 따라가며 꼼꼼히 훑어보는 또 다른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꽃망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살이 붙는다. 잘 여문 수수알 만하게 되었는데 싶으면 어느새 팔알만큼 통통해진다. 처음에 거무튀튀하던 표피는 보랏빛을 시작으로 연분홍, 자색이 나타나고 다시 초록빛이 감돈다. 그러면서 몽우리는 콩알 만해지고 이제 막 꽃잎을 벌리려고 가운데 흰 빛깔이 비친다. 마치 먼 우주의 별빛처럼 신비스럽다. 베일에 가렸던 그 속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일까 싶게 사람을 조바심 내게 한다. 비록 한송이 매화꽃이 활짝 열리고 보면 별게 아니건만 피어날 때까지의 생명의 비밀은 놀랍기만 한 것이다.

지천으로 피어 있는 매화꽃을 발에 차이는 모래알처럼 한낱 한순간 피었다 시들어지는 자연현상으로 가볍게 보면 그게 오히려 평범한 이치런만 적어도 그 꽃이 하루하루 변해 가는 모습을 관찰할 때 생명체란 정말 불가사의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청매의 연한 연둣빛이 도는 백색의 투명한 꽃잎, 때마침 살짝 지나가는 바람에도 바르르 떠는 꽃술이 귀엽기보다는 차라리 애처롭게 다가오는 까닭은 뭘까?

한마디로 매화꽃은 화사하다. 맑다. 고귀하다. 고고하다. 향기롭다! 아무리 여러 소리 해봐도 그 정체를 제대로 옹골 수 없다. 며칠 있으면 만개할 매화꽃 동산은 누굴 위해서 그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워딩드레스를 입은 청순한 신부가 그 밑에서 포즈를 취하고 미소 짓는다면 썩 잘 어울릴 것이다. 아니면 개구쟁이 아

이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놀기만 해도 천상의 낙원으로 변할 것 같다. 비록 누추한 늙은이들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즐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그 노인들이 신선으로 비칠 것이 분명하다. 지상이고 천상이고 간에 낙원이라면 바로 이런 매화꽃으로 온천지가 둘러싸인 향기로운 동산이 아닐까? 도대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에서 무엇 때문에 못된 마음을 품고 막된 짓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라도 마음이 비단같이 되고 즐겁고 행복해질 것만 같다.

오전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일 때 꽃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역시 향기로운 녹차 잔에 입술을 갖다 대보라! 찻잔 안에 방금 단 꽃한송이를 띄워 마시려 할 때의 코에 와 닿는 그 오묘한 향기, 세상에 이보다 더 맑은 호사가 어디 있으랴!

하지만 무지막지한 인간들은 꽃놀이를 한답시고 난장판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돼지고기를 구워대고 넘치는 술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구 떠들어대고 요란한 웃음소리가 화끈거리는 누린내와 뒤엉켜 난리를 치다가 때로는 욕지거리, 삿대질로 웃지 못 할 광경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천상의 낙원이라도 순식간에 악마들이 들끓는 지옥으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나는 어찌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지옥과 천국이 이리도 쉽게 손바닥 뒤집듯 엮치락뒤치락 하는 건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수년 전에 문화답사를 한답시고 캄캄한 새벽녘에 험한 언덕길을 오르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뜻밖에 정체를 모를 암향(暗香)이 가슴 속 깊숙이

까지 스며들어 발을 떼어놓기 싫었다. 그렇게 을씨년스럽고 살갗으로 파고들던 한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달콤한 향기로 넘치니 천상의 꽃밭을 거니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매화가 피리라. 마음 같아서는 피기 전에 봄비가 폭 내리고 물기 머금은 꽃봉오리들이 한꺼번에 열리면 그 청순한 자태야 일러 무엇 하겠는가? 꽃송이마다 수정 같은 물방울을 달고 떠오르는 햇살에 마주치면 오색영롱한 세상이 펼쳐져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의 혼을 빼 놓으리라. 올해는 억지를 써서라도 매화꽃 속에서 극락을 누리 볼 작정이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구독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발행하여(2017년 3월 265호)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 등에 꾸준히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지(大地, The Good Earth)』

펄 벅 장편 소설

글 • 윤부혁(작가)

『대지(大地, The Good Earth)』는 미국의 여류작가 펄 벅(1892~1973)의 장편 소설로 1931년 간행되었다. 선교사의 딸로 생후 5개월 만에 중국으로 이주한 작가 자신의 견문을 토대로, 빈농으로 재산을 모아 대지주가 되는 왕룽(王龍)과 그 일가의 역사를 그린 대작이다. 흔히들 『대지』는 한 권의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 1부 <대지(The Good Earth)>(1931), 2부 <아들들(Sons)>(1932), 3부 <분열된 일가(A House Divided)>(1935)의 3부작으로 되어 있다. 나는 고2 때에 일서(日書)를 번역한 한 권의 책인 3부를 읽은 적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제목이 <나뭇잎 떨어져도 대지

는 살아있다>로 원제가 'A House Divided'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생애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낸 작가는 청·일 전쟁 이후, '의회단의 난'·신해혁명·청 왕조멸망·국민당 창당·공산당 창당·국공합작 및 분열 등, 계속되는 혼란한 국내 정세와 외국세력의 침입과 간섭 등 소란스럽고 고난에 찬 시대에 우왕좌왕하는 민중의 모습을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아온 여주인공 오란을 통해 볼 수 있는 동양적 인종(忍從)의 전형적인 모습인 전통적 여성상의 묘사, 왕룽의 세 번째 부인인 렌화(梨華) 등에 관한 감각적 묘사는 동양

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 전체를 통하여 이야기의 내용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거침없이 흐르며, 동요하지 않는 중국 민중의 강인함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특히 제1부 『대지』는 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출간 다음 해인 1932년 풀리처상을 받았으며 1938년 3부작의 완결로 펄 벅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펄 벅의 자서전에 의하면, 『대지』를 쓰게 된 긴박한 동기의 하나는 외동딸이 백치였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작품에서도 왕룽의 큰딸이 백치로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소설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어 낮을 밤으로 바꾸는 메뚜기 떼와 끊임 없이 계속되는 가뭄과 한파, 이런 장면을 읽으면 인간이 얼마나 왜

소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정복했다고 큰소리쳐도 자연에 비하면 그렇고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자연과 싸워나가는 모습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왕룽'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신부를 고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다른 농사꾼들처럼 종으로 자란 '오란'을 돈을 주고 사 온다. 오란은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일을 썩 잘했다. 두 내외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조금씩 땅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한 가뭄이 들어 곡식은 말라 죽고 가난한 농부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나무순이나 풀뿌리는 물론 흙까지 먹게 되었다. 이러한 약점을 노려 도시의 장사꾼들은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였다.

왕룽 역시 굶주림을 이겨낼 수 없어 토

지를 팔고 남쪽 도시로 돈벌이를 떠난다. 왕룽은 인력거를 끌고 오란은 구걸을 해서 겨우 목숨을 이어 나갔다. 얼마 후 난리가 일어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뛰어 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약탈하여 나왔다. 왕룽은 이 북새통에 큰돈을 쏙게 되고 오란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옛 지주의 땅을 모두 사들였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은 아니었다. 한 차레 대홍수를 치렀고 왕룽은 바람을 피우게 된다. 이런 고생으로 쇠약해진 오란은 매뚜기 떼의 기습을 겪은 후 더는 삶을 지탱할 수 없어 죽게 되는데, 그제야 왕룽과 그의 자식들은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깨닫게 된다.

아들들의 제안에 따라 황씨 덕 저택으로 집을 옮긴다. 넓은 저택에서 왕룽은 지나온 나날을 회상하며 고독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젊고 어여쁜 계집종 렌화를 첩으로 삼으며 외로움을 달랜다. 큰 아들은 그의 뒤를 이어 대지주가 되고, 둘째

아들은 거대한 상인이 되며, 막내아들은 집을 뛰쳐나가 군인이 된다. 어느 날, 훌륭한 관을 준비해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왕룽은 그의 두 아들이 토지를 팔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한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의중을 비웃을 뿐이다.

드디어 늙은 대지주 왕룽의 고독한 모습에 그의 죽음을 예고한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집착한 것은 토지였다.

우리 사회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해있고 고도의 도시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은 현대인에게 이전과는 다른 고향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돼가고 현대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땅, 근원적인 공간에 대한 감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기도 하다. 펄 벅의 이 작품은 대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왕룽 일가의 역

사와 그 속에 있는 대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 본원적인 장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왕룽은 광활한 대지를 소유하게 되지만, 영원히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이 씨를 뿌려 낳은 자식들조차 아버지가 죽게 되면 땅을 팔아버리겠노라며 배신하지만,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는 대지만은 그를 배신하지 않고 남아있다. 왕룽이 소중하게 아끼는 대지는 결국 오란과 함께 일구어낸 것이자 자신만의 힘으로 일구어낸 성과가 아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은 얼마나 될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펄 벅의 작품을 번역문학의 대가 장왕록 교수와 영문학자이면서

수필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장영희 교수가 공동 번역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번역작가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안정효 선생의 번역본 『대지』도 똑같이 많이 읽히고 있다.

펄 벅은 이 작품을 통해 마지막 황제가 군림했고 20세기 정치 및 사회적인 격변이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던 시대의 중국에 대한 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난한 농부 왕룽 일가의 역사를 통해 사회 변화가 몰고 온 도전과 갈등에 대처하는 인간의 고민을 형상화하여 20세기 중국인들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작품은 중국 대륙과 중국인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했던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다 주었다.

2017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안내 “나의 삶, 나의 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면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꼭 생은 간결하고 엄정한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타인의 입술 속에서
나를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 속에 꼬장꼬장하고 허투루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이
점점 부드러운 직선이 되어감을 발견합니다.
- 존 크라슬리 '희망' 중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흔히 유명세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사람을
보면 뭐하는 사람이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자신만의 열정으로 자
기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서 말입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2017년 일요특강으로 '큰 소리 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자신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분, 자신의 삶을 개척하신 분
들을 모셔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3월 26일(넷째 일요일) 강연회 -

글씨 예술가 “강병인”

캘리그래퍼, 서예가, 디자이너, 작가 등 강병인
을 지칭하는 말은 다양하다. 하지만 강병인은
캘리그래피를 통하여 한글 글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글씨에 생명을 불어넣
는 '글씨 예술가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 <대왕세종>
tvN <미생>, JTBC <송곳>, SBS <천일의 약속
>, KBS2 <공주의 남자> <엄마가 빨났다> 등등
강병인 작가가 작업한 드라마, 영화 글씨이다.

그밖에도 참이슬, 산사춘, 화요, 아침햇살,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
무리' 등이 있다.

한글을 문자 안에만 가둔 기존의 틀을 깨고 한글의 입체성, 이미지
성을 드러내 보이며,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 예술적인 가치를 찾고 알
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글씨 예술가 '강병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
어봅니다.



4월 강연회 일정

- 4월 23일(넷째 일요일) :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전 국방장관)
- 4월 30일(다섯째 일요일) : 김정희 부름의 전화 대장

2017년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현대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뻐 대가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 존재와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이며,
 자연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 법정 -

자동차 경적 소리, 쉬지 않고 울리는 핸드폰 소리, TV소리, 옆 테이블 사람들의 수다 소리, 현대인들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다양한 소음의 노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2017년 숲기행을 통해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새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숲길 그리고 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던 시골길을 다시 걸어봄으로써, 자연의 여유로움과 옛 추억을 떠올리며 소음에 지친 영혼을 보듬는 시간을 갖고자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를 진행합니다. 숲과 생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주제 :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2. 일정 : 4월~7월 9월~11월 - 둘째 토요일
3. 예정지(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월 8일: 대구 동구 대암봉, 요령봉, 능천산-웃골마을(경주 최씨 집성촌)
 - 5월 13일: 경북 의성군 수정사, 경덕왕릉, 빙혈-산우마을(영천 이씨 집성촌)
 - 6월 10일: 경북 안동시 봉정사, 천등산-웅천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 7월 8일: 전북 고창군 선운사, 왕버들숲, 고창 고인돌군-남창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 8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 9월 9일: 전남 함평군 불갑사, 불갑저수지-모평마을(파평 윤씨 집성촌)
 - 10월 7일: 경북 봉화군 석천정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닭실마을(안동 권씨 집성촌)
 - 11월 11일: 경기도 안성시 운수암, 덕봉서원-덕봉마을(해주오씨 집성촌)
- *11월 숲기행은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를 위한 숲기행입니다.

4.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3월 13일(월)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선착순 42명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우천 예상시 우산 준비)
- 참가비 : 본모임 회원, 봉사자, 길사사 신도 - 35,000원
비회원, 일반참가자 - 45,000원
* 점심식사 포함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5.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결식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한 신청바랍니다. (빈번한 취소, 변동을 줄이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제 1회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다포세대로 지칭되는 우리의 청년들은 날로 각박해지고, 메말라가기만 현실 속에서 꿈과 인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들을 연못 속의 더러운 진흙 삼아 대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대학생들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마음, 세상, 자연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행의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와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사업 ‘나누는 기쁨’을 진행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패기 넘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대학생, 재(휴학생) 동아리 팀(팀 구성 5~10명)

* 학교, 전공, 성별, 나이 무관

* 학교연합가능

2. 모집인원 : 최소 6개 팀(최대 사업비 소진 시)

3. 혜택

- 봉사활동 사업비 지원(팀당 최대 200만원)

- 우수봉사 팀 장학금 지급(최대 50만원)
- 봉사활동 시간 인정(V.M.S)

4. 일정

- 서류접수 : 3월 6일~4월 14일
- 합격발표 : 4월 19일
- OT : 4월 29일 (팀장, 회계 담당 등, 최소 3명 참석)
- 봉사활동기간 : 5~10월(최소 6회, 30시간 이상 활동)
- 결과보고 제출 : 11월 17일
- 결과보고회 : 11월 24일
- 장학금 전달식 : 12월 14일

* 선발된 팀은 맑고향기롭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지원 분야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마음을 맑히는 활동)
 - 예 저소득아동 독서모임, 벽화그리기와 같은 문예활동 등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불우한 이웃을 돕는 활동)
 - 예 실버존 캠페인과 같이 소외된 계층을 돕는 활동 등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
 - 예 생태 환경 가꾸기, 생명 보호 활동 등

6. 접수방법

clean94@hanmail.net / 메일 제목 나누는 기쁨_팀 이름

* 지원 서류 양식은 3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음.

7. 문 의 처 : 중앙모임 02-741-4696 / 나누는 기쁨 사업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할머니의 전설

글 • 김동신(회원)

대(代) 끊긴 재당숙네에 양자 온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임중에 단지(斷指)한 효자라는데
 딸 하나 달랑 낳고는 다른 소식 없더래요
 큰일 난 큰할머니, 시앗을 권했는데
 한 번을 사양 않고 그러마 하고 들었대요
 세상에, 말이 그렇지 그게 어디 그런가요
 새 할머니, 내리 셋 아들을 낳았지만
 나면 죽고 나면 죽고 역장이 무너지고
 사람 참, 환장하는 게 이렇구나 싶더래요
 속에서 열불 나도 성님 동상 해가면서
 두 할머니 심기일전, 치성불공 드린 끝에
 떡 하니 아들 쌍둥이! 서로 안고 울었대요

하나씩 돌려 업고 모도 심고 밭도 매며
 어찌고 저찌면서 아롱다롱 살았는데
 이뿔싸, 큰 할머니가 마흔 둘에 가셨대요
 이윽고 우리 할머니 인방으로 내려오고
 물려 받은 낫요강도 성님 보듯 닦아 쓰며
 평생을 제삿날만은 살뜰하게 챙겼대요
 두 아들 열다섯 살에 한날 한시 짝을 맺어
 큰아들 이남이녀, 작은아들 사남일녀
 줄줄이 손주가 늘어 마당 가득 환했는데,
 한 울타리 새 터놓고 형제우애 거룩하여
 주거니 받거니 한 살림을 일으키니
 신명 난 할머니 두 손, 보살 손이 돼갔대요
 남녘이 북녘보다 못 살던 시절이라

인근에 밥 굶는 집 오다가다 많았는데
 아 글썄, 며느리 몰래 틈만 나면 퍼줬대요
 언제, 언제, 애 낳을 집 귀신같이 알았다가
 굴뚝에 연기 안 나면 소리 없이 찾아가서
 쌀 한말 미역 한 가닥, 부뚜막에 놓았대요
 손자가 손자를 보고 한 세월이 흘렀는데
 할머니 목은 산소 사초(莎草)하고 입석(立石)할 때
 상석(床石)에 새길 자손이 넘쳤대나 어쩔
 대나
 이제는 전설 되어 청산에 누웠어도
 밥술이나 먹는 것이 두 할머니 공덕이라
 후손들 모였다 하면 요 애기는 꼭 한대요
 돌아서면 배 꺼지는 국수잔치 하지 말고
 오는 사람 배 부르게 떡국잔치 꼭 하시게
 나 죽어 초상 치를 때 그리하라 이리시고
 사흘 앓다 가셨는데 하필이면 칠월 기망(既望),
 그 염천(炎天)에 무쇠술 걸고 떡국을 끓
 였대요
 하여간 사흘 밤낮을, 삼년상도 똑갈게!

- 정년 퇴직 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인생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중입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지금은 4대째 제 손주까지 부처님의 법향 안에서 살고 있지요. 자손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해주신 할머니의 일생을 우리 시조 가락으로 노래하고 형상화하였습니다.

대화, 내 말이 더 적어야...

글 • 고헌희(공감대화 개발원장)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는 1996년에 법정 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공감대화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때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내용이 공감대화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부부끼리 혹은 집안 식구들 사이에 대화를 이루려면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다.

둘째,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셋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3가지 원칙이 적혀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나무란다고 불려 앉혀놓고 한 시간이 넘도록 훈계를 했다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자신을 반성했을까요? 아마도 어서 엄마의 잔소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훈계도 아니고, 대화도 아닙니다. 엄마의 화풀이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와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기만 하고, 누군가는 말하기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요즘은 학

교 수업도 일방적으로 한쪽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법정스님 글의 첫째 원칙처럼 될 수 있으면 상대보다 말을 적게 하십시오. 특히 어린이와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눈을 맞추며 질문하고, 고개 끄덕이며 공감하고, ‘아!’ 하면 서 들어준다면 상대는 다양한 의견과 감정을 풀어낼 것입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환희에 찬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바로 극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하늘에 해는 몇 개예요?’

맑은 날 늦은 오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5살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상상 하셔서 3가지의 답을 적어보세요.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공감대화 ‘상.느.바.부’를 떠올리며 대화를 잘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한 번쯤 잘 되고 다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감대화를 잘 해보려는 마음을 접으시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상.느.바.부’를 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몇십 년 동안 말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꾸겠다는 생각을 100일만 가져간다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100일, 3달과 10일 정도! 말을 시작할 때 ‘상.느.바.부’를 떠올리고 시작하고, 안됐다면 ‘이번에는 안됐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100일이 지났다고 공감대화가 꼭, 잘되지 않는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예전의 대화, 폭력대화를 하게 되면 머리의 한 부분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콧속 찌르게 되고, 가슴은 쿵쿵쿵 뛰게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때로는 공감 대화가 잘 되어 짜릿한 소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심하게 마음을 풀어놓는 대화 상대를 만나서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문득 삶이 바뀐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감대화는 삶을 소통으로 풍요롭게 바꾸어 줍니다. '아, 내 삶이 바뀌었네…….' 라고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되면, 상대보다 훨씬 적게 말을 하는 나를, 경청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세요'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듣기가 공감 대화의 밑반침입니다. 잘 듣지 않고는 잘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 오후의 햇살 아래 아이의 질문을 받은 저는,

'해가 당연히 한 개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라

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아침 해 색이 다르고, 점심 해 색이 다르고, 저녁 해 색이 달라서 하늘에 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 날 저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 대답을 한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저처럼 답하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아이의 IQ와 EQ가 소복소복 자라나도록 공감대화를 한다면,

'와, 하늘의 해가 몇 개일까?' 라고 앵무새 되어 질문하거나,

'하늘의 해가 몇 개인지 궁금하구나?' 라고 상대의 느낌을 넣어 질문하거나,

'햇살을 보면서 오늘은 다른 해가 나왔다고 생각됐나?' 라고 아이의 질문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의 기본인 '네 생각은 어떠냐?'도 잊기 마십시오.

엄마가 이렇게 공감대화를 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신나서 말할 것입니다.

'엄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온 해는 처음 나왔나봐요. 색깔이 새겨요. 하늘에는 해가 엄청 많은가 봐요. 아침에 해 색은 지금하고 달랐고요, 점심에도 다른 색의 해가 나왔었어요. 비 온 후에 나오는 해는 또 다른 색깔 해 일꺼예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하늘에도 해가 많은가 봐요…….'

포근한 햇살이 나무의 겨울눈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곧, 연두의 향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봄에 100일 동안 공감대화의 끈을 잡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100일 후에 연두의 향연처럼 소통의 향연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의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차디차고 무표정한 집을 맑고 향기로운 집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화 말벗' 자원 활동가 모집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따라 더욱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전화말벗 사업을 전개하려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화기법, 노인상담에 관심있거나 소질이 있는 분이면 더 고맙겠습니다.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그리움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도 돌아가지 못한 나의 고향은 늙으신 부모님과 산천초목만이 지키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짙어만 가는 어린 시절의 고향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간다.

기계화되지 않았던 농촌 들녘의 농사일에는 노랫가락이 끊이지 않았으며, 물때에 맞춰 드나드는 여객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슬픈 노랫가락은 힘든 허리를 펴고 잠시 쉬어 하라는 손짓이기도 했다. 딸을 시집보내려고 여객선에 몸을 싣고 나간 아버지는 나의 키 높이만 한 무쇠로 만든 반짝반짝한 검은 미싱한대를 장만해오셨다. 무쇠 미싱과 촌부를 내려놓은 여객선은 머지않

아 딸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경을 노래하듯이 뱃고동을 울리며 저만치 멀어져간다.

동네 한켠에 자리한 자그마한 동산에서는 동네 꼬마들이 벗짚으로 만든 공으로 거기에 자라나 있는 소나무를 골대 삼아 축구시합에 여념이 없다. 한집에 예닐곱의 형제는 보통 있던 시절이라 친구 대부분은 형의 힘을 빌어 늘 시합에 뛸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운동신경이 무던데다 나를 끼워 줄 힘을 가진 형도 없는지라 늘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만 했다. 어쩌다 친척 형이 나의 이런 심경을 눈치채고 끼워주더라도 하는 날이면 신이 나

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벗짚으로 만든 공을, 때로는 동네에 돼지라도 잡는 날이면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 당시 최고급 가죽 공을 쫓았다. 시합에 참가한 선수는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연 가죽 신발인 맨발로 미친 듯이 골대를 향해 돌진했었다. 시합에서 진 팀은 이긴 팀을 등에 업고 동산을 한 바퀴 돌곤 했었다.

이런 추억이 지금도 고향으로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니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목숨을 이어주는 땀줄과도 같이 지금의 나를 키우는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지 못한 시절이었지만 마음은 늘 넘치는 어린 시절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입고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현대사회는 부족함이 없는 듯 보이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늘 씁쓸하다.

내가 언제나 그 누구에게도 늘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다. 세상에서 아마도 나처럼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늘 비우고 사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있다. 다시 말해 어제의 교훈을 오늘의 진리로 삼으며 일일신유일신(日日新又日新)을 실천하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중략) 물질은 넘치지만, 인정이 고갈된 도시생활에 넋더리가 난다. 넘치는 재화에는 현대인의 욕심이 더덕더덕 배어 있어서 인간의 근본마저도 빼앗고 있다.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든 가마니처럼 혼을 들여 만든 물건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계화와 정보화는 인간의 삶을 기름지게 해야 할 터인데 거꾸로 황무지로 만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고 있으니, 무엇을 위한 현대화인지 촌놈의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디 그뿐인가. 부모가 주신 몸뚱이마저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것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연 도깨비가 사는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넘치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는 향락은 도를 넘어 인간사회에 신종병을 퍼뜨리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열량만을 섭취하고 또 열량이 바닥이 나면 보충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필요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밀어 넣다 보니 항시 보파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산다. 그 덕에 병원 의사라는 직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고 대학입시에도 의사지망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그에 비해 사고는 점점 도태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다. 넘치는 생활환경에서도 가능

한 궁핍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한때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부의 대가가 턱없이 많이 보장되는 희귀현상의 사회였다. 그 결과 부모들은 부의 축적을 목표로 자식교육에 열성을 다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은 부를 지향하는 것보다 사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향 산천의 흙 내음과 부모님이 흘린 땀 냄새가 들뜬에 푸르름을 만들었고 산들바람이 흔들거리며 나를 부르고 있다. 지식이 아닌 지혜로, 나의 부모님과 조상이 가르치는 진리와 함께 살라고 나를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양의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신토불이 자본주의 논리로 지구촌을 기쁨지게 하는데 기여하며 살고 싶다. 불혹을 넘은 만학도는 타국에서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대학 연구실로 발길을 재촉한다.

2016년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및 배분 결과

우리 주변에는 난방비와 전기세를 아끼고자 추운 겨울 냉기 흐르는 어두운 방에서 외롭고 어렵게 지내시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에서는 복지 사각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홀몸 어르신들께 따뜻한 온기를 나눠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4년차를 맞은 모금사업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신한은행 후원계좌 19,476,404원(36.1%), 자동이체(CMS) 12,799,000원(23.7%), 캠페인 현장 모금함 1,340,440원(2.5%), 인터넷 모금(같이가기 with kakao, 네이버 해피빈) 16,983,060원(31.5%), 현금(방문후원) 840,000원(1.6%), 동전저금통 2,483,290원(7.3%) 합계금액 53,922,194원(100%)입니다. 전년 대비 모금액은 14% 상승하였습니다. 총 모금액 53,922,194원 중 25,374,660원은 2016년 소식지에 소개되었던 결연대상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28,547,534원은 2017년도 긴급의료비 및 복지사각 지원 및 결식 이웃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금액

100% 전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인터넷 모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며, 이 면을 빌어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맑고 향기롭게를 모바일과 앱(APP)으로 만나보세요

법정넷(법정스님 추모 사이트)과 맑고 향기롭게 사이트를 통합한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앱(APP)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스토어에서 '맑고 향기롭게'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을 포함해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 장터 개최 예정

맑고 향기롭게에서 진행하던 '녹색나눔장터'를 상설매장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활용하는 대신, 특별하고 의미있는 '무소유 장터'를 기획하려 합니다. 회원님과 신도님들의 기부 문화 정착과 개인 애용품 공유 문화를 위해 나만의 소장품 나눔장터를 실시하여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되어, 기부자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참여자에게는 소중한 물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 오신날 개최하려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소장품 후원 또는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Maigo Hangeurumge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Maigo Hangeurumge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 반찬 나눔은 매주 밑반찬 2종류, 분기별 농협상품권(3만원) 지원, 명절(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 물품 후원을 5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Maigo Hangeurumge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

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Maigo Hangeurumge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행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 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Maigo Hangeurumge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 주신 용품은 'Maigo Hangeurumge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 Maigo Hangeurumge 생태 자원 활동에**

관심 있는 분 모집
Maigo Hangeurumge 회원님 중에서 자연활동, 환경운동, 생태적인 삶과 실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봉사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판매, 홍보 활동과 생태현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팀을 구성하여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져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6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향기롭게 강연회 : 3월 26일(일) 나의 삶, 나의 길 - 강병인 캘리그라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2,3,16,17,23,24,30,31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9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6,13,20,2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노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

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8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8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 (7,14,21,28일)/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보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바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사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기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5회차 기도가 3월 16일(목)에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3월 4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8시 00분 ~ 3월 12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3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3월 1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4회차 회향

- 회향 : 3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5회차 입재

- 입재 : 3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3월 2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지장전 천일기도 900일 회향

- 일시 : 3월 28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지장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3월 28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신행단체 봉사자 모집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주저 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실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지장회, 천수회(템플), 청년회, 합창단, 새신도봉사회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상사와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문의 : 길상사 중무실 02.3672-5945)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3월 4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3월 11일(토)	저녁 8시	극락전
보름기도	3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15일(수)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금강경기도 4회차 회향	3월 15일(수)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기도 5회차 입재	3월 16일(목)	오후 2시	극락전
관음재일	3월 21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전 천일기도 900일 회향	3월 28일(화)	오전 9시 20분	지장전
초하루법회	3월 28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불기 2561년(2017) 길상사 불교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2017년 불교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바른 신행과 교육을 통하여 반야를 향해 정진하는
불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교대학 8기

- 개강 : 3월 9일 (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주간반 - 오후 1시30분~3시40분
야간반 - 저녁 7시30분~9시40분
- 입학자격 :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교육과정 : 1년(2학기제)
- 교육비 : 40만원(학기별 분납 가능)

경전반

- 개강 : 3월 14일 (화)
- 시간 : 매주 화요일 2시 ~ 4시
- 경전 : 보조국사수심결
- 교육기간 : 14주
- 수강료 : 7만원 (교재 별도)

불교입문 34기

- 개강 : 3월 8일 (수)
- 시간 : 매주 수요일
주간반 - 오후 1시30분~3시40분
야간반 - 저녁 7시30분~9시40분
- 대상 : 초발심자,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교육기간 : 12주
- 수강료 : 7만원(교재 포함)
- 특전 : 수료 후 5계 수지, 범명 수계

* 접수계좌 : 신한은행 100-025-929544 (길상사 불교대학)

* 문의 : 길상사 중무실 02-3672-5945 (입금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2017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창립 이후 24년째(2016년까지 총 599명/총지급액: 약 8억 7천여만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추천서, 신청서, 학교 발전기금 계좌 사본
 - 추천서, 신청서는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기재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필수
 - ②학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접수 마감 : 2017년 3월 17일(금) 우표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7년 4월 5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장학금 동참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맑고 향기롭게